
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

서 면 회 의 결 과

(2016년도 제1차)

2016. 5.

정 보 기 획 관
(정보기획담당관)

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서면회의 결과

(2016년도 제1차)

□ 일 시 : 2016. 5. 13.(금)

※ 서면회의 사유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어려워 서면회의 개최

□ 심의위원 (15명)

- 강영욱, 강현숙, 김미연, 김찬석, 김현성, 노규성, 윤종수, 이경전, 이규택, 이봉규, 이원부, 이재용, 임정욱, 채승병, 최영훈

□ 안 건(2건)

- '16년도 서울시 정보화시행계획 검토 및 자문
- '16년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검토 및 자문

□ 심의결과

- 재적위원 29명 중 15명이 심의 의견 제출
- 주요의견
 - 디지털정책 역량 강화, IoT, 핀테크 등 기술활용, 외국인 대상 정보인프라 확충, 모바일 접근성 개선 등

□ 개별위원 의견

안건 ①. '16년 정보화시행계획 관련

〈○○○ 위원〉

- 소통/개방/공유/협업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의 통합운영 및 정보유통 체계화가 필요함
- 소셜특별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결과 피드백이 미비함
-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정보화사업 중복여부 및 협업 가능성 점검 필요
- 정보화사업 4대 전략을 연계하는 '디지털 코디네이션'에 대한 고려 필요

<○○○ 위원>

- 시민 주도, 디지노믹스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계된 시행계획의 방향이 적합하고, 추진 내용이 구체적임

<○○○ 위원>

- 디지털서울 2020은 매우 우수한 정책 기초를 담고 있으나, 데이터와 IoT 기반의 디지털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즈음에 서울시 정책도 디지털 융합이 계속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선도하여야 할 정책 기반으로서의 공직자의 디지털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, 전 공직자 대상의 디지털정책 교육을 시급히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이 보완되기를 희망함

<○○○ 위원>

- 거주지우선주차제의 개혁, 노변 주차제의 개혁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하고, 불법이용을 줄이며, 주차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사용자중심결제(하렉스인포텍의 UBpay)등 새로운 핀테크를 활용할 경우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됨
- 지하철내의 시인들의 시를 시민이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,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 시인들에게 감동을 표시하고, 일종의 Donation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음
- 사물인터넷 센서와 LPWAN/LTE-MTC 등의 기술을 활용해 쓰레기통과 트럭의 연계 체계를 만들면 시민들이 언제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고, 이를 치울 수 있는 체계가 구축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됨
- 서울의 모든 구 등 전역을 문화 관광의 지역으로 만드는데 있어 IoT와 O2O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이미 진행중인 서울시의 사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. 다만, 북촌과 같은 유명 관광지 IoT도 중요하지만, 아직 유명하지 않은 구, 예를 들어 금천구, 노원구 등 외곽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됨

<○○○ 위원>

- 빅데이터, 클라우드, IoT 등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요망
- 건축예산을 고려하면 정보화 예산이 오히려 준 건 아닌지 우려가 됨
-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같은 인력양성 방안 강화 필요

<○○○ 위원>

- 정보기획담당관 업무 가운데 향후 서울시 정보화와 관련되어 역동적으로 진행될 핀테크와 IT관광 등 유관업무를 주요업무 항목에 기타 항목으로 추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<○○○ 위원>

- 전체적인 계획내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있으면 함

<○○○ 위원>

- 정보기획관 및 이하 실무진 분들의 노력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균형있게 짜인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글로벌 디지털 리더에 걸맞게 서울시의 역점 정보서비스에 대한 외국어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- 여전히 많은 우수 서비스들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계 시민들의 이용장벽이 있음. 시정 기획단계에서 서울은 이미 글로벌 도시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진정한 글로벌 디지털 리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임

안건 ②. '16년 웹접근성시행계획 관련

<○○○ 위원>

-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중에 포탈에서 검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. 관련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내부 조사시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음

<○○○ 위원>

- 초고령사회의 노인계층 급증에 따라 에이징그룹의 웹접근성에 대한 항목은 별도로 관리 필요
- 사회적 약자 그룹의 정보이해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시각화 강화 > 웹접근성, 호환성 이외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인식성에 대한 심의/교육/가이드제정/실태조사 항목도 필요

<○○○ 위원>

-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

<○○○ 위원>

- 제목에서 웹접근성 수준 향상/수준향상 표현 통일 필요

<○○○ 위원>

- 대체로 양호한 웹접근성 수준향상계획으로 파악되나 최근 모바일 접근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하는것도 필요해 보임

<○○○ 위원>

- 네이버 앱의 뉴스 서비스에서 본문읽기 기능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뉴스를 읽어주는 서비스인데, 네이버와 협조하거나 이 기술을 구매하여, 웹접근성 수준을 장애인, 비장애인 모두에게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<○○○ 위원>

- Explorer뿐만이 아니라 Chrome, Safari 등에서도 완벽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. 특히, ActiveX는 완전히 제거하기를 바람

<○○○ 위원>

- 양호하다고 사료됨

<○○○ 위원>

- 역시 해외사용자나,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배려한 웹접근성 향상 계획이 부족한 것 같음

<○○○ 위원>

- 웹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홈페이지가 일반 방문상위 홈페이지와 우선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현재 웹접근성 품질인증이 이뤄진 홈페이지는 일반정보 제공 홈페이지가 대부분으로 보임
- 인터넷 환경이 급격히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므로 웹호환성 관리도 중요한 이슈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평가점수가 2015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근소하게 떨어진 이유가 의문임
(시 홈페이지: 84.6→83.9, 산하기관 : 81.0→80.7)

항목별 세부점수를 제공하여 남은 개선 주안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